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오순절)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학교는 6-7월, 수요기도회는 6-8월 쉽니다.
4. 2025 온가족 여름 가족캠프
 - 주제 : 나는 예배자입니다
 - 일시 : 6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8일(주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 장소 : Good Earth Village
25303 Old Town Dr, Spring Valley, MN 55975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6일 : 위충일, 이시원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가은 / 설교번역: 가족캠프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야외예배 : 8월 24일, Silver Lake Park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2주)

행 16:16-34 / 시 97 / 계 22:12-14, 16-17, 20-21 / 요 17:20-26

교회세운날 2017.6.11

25-22

6월 1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6월부터 8월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84:1-2,12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 기도 ————— 위충일
-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성경봉독 ————— 요한복음 13장 1-11절 ————— 인도자
- 설교 ————— 대야와 수건 ————— 김경헌 목사
- 성찬식 ————— 다같이
-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4절)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놀람으로 가득한 세상

출지도 덤지도 않은 그야말로 적당히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추위를 생각하면 이 시간이 꿈만 같지요? 당연의 세계에는 놀람도 감사도 없다고 합니다. 놀람은 전혀 낯선 것과 마주할 때도 나타나지만, 매우 익숙했던 것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책길에 만나는 들꽃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에서, 무심코 들이키는 커피 한 잔의 향기에서 놀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난 주 막내가 많이 아팠기에 회복되어 잘 먹고 잘 자는 아이가 고맙기만 하고, 무탈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고 살았음을 반성합니다. 주중에 아들이 소중한 제 안경을 밟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닥에 앉아 잠깐 안경을 옆에 벗어 놓은 아빠 잘못인데, 죄책감은 아들 몫이었죠. 안경 없이 봉사나 다름 없는 저에게는 큰 사고였습니다. 스크래치가 너무 크고 많아 안 쓰고 보관해 놔던 보조 안경을 쓰려고 하니 답답해집니다. 사고를 친 아들 녀석이 부러진 안경테를 테이프로 감아 제법 그럴싸하게 고쳐 와서 미안하다 합니다. 고쳐준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자기도 얼마나 놀랐을까 해서 괜찮다 말해줬습니다. 몸의 일부인 것마냥 항상 익숙해서 가끔은 쓴 채로 세수도 하게 되는 안경이 얼마나 소중한고 고마운지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희랍어 시간>이라는 한강 작가의 소설에도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꺼운 안경을 끼는데도 그에게는 세상은 희부였기만 합니다. 어느날 여주인공을 도와주려다가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계단에 떨어진 안경을 더듬어 찾다 그만 깨진 안경알에 손을 심하게 다치게 되죠. 여주인공은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안경 이야기만은 남 이야기가 아닌듯 합니다. 안경을 낄 때마다 안경테 주변으로 아들이 붙여준 테이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의 깨진 안경테를 보며 마음 졸이며 애썼을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마9:14)”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마9:15)” 대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하는 삶을 혼인 잔치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고, 화해와 일치가 있고, 생을 함께 경축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을 기뻐할 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과 빛을 발견해내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의 경이로움과 환희에 홀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가족 캠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잔치의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형제 자매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함께 경축하며 경탄하는 놀람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